



본란의 기사는 본회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회 國際部(TEL : 553-0941/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EC 집행위 반덤핑 관련 제8차 보고서

EC 집행위는 역내 반덤핑 및 반보조금 행위에 관한 제8차 보고서를 유럽 의회에 제출. 이에는 1989년(27건) 동안 집행위가 조사를 했던 반덤핑에 관한 예비, 최종판정 및 가격인상(Price Undertaking), 재심절차 등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대상국으로 일본(13건), 한국(13건)에 및 중국(12건)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집행위는 동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을 언급했음.

- 1) 현행 우루과이 라운드내에서의 EC 반덤핑 절차 개선 모색.
- 2) 1988년과 비교하여 1989년 제조사 절차는 확연히 줄었음.

### 2. EC 반덤핑 Case, 새로운 공개 의무의 가능성

향후 EC 집행위에게 반덤핑 조사 절차에 있어 광범위한 공개 의무를 지울수 있게 될수 있는 한 반덤핑 Case가 현재 유럽 사법 재판소에 회부전에 있음.

Advocate General은 이에대해 반덤핑 제소가 공정한 심판을 받으려면 집행위는 기밀 통상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첨언.

동 Case의 원고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회사로서 자사 수출품이 40%의 반덤핑 관세에 부과되어 있는데 Advocate General은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EC와 미국의 절차를 비교하여,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덤핑 관세가 산정되는 방법과 관련 정보가 이해 당사자들의 변호사에게 "Protective System" 하에 밝혀지는 것이 통례임을 지적했음.

현재의 Case에서는 집행위가 대표적 EC 생산자와 그 비용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분명히 수출업자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방해한 것임.

현재로서는 법정이 Advocate General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 분명치는 않으나 최근 몇해간 집행위의 반덤핑 절차가 법정에 의해 비판받고 있는 몇 안되는 드문 예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 3. 유럽 소비자 연맹(European Bureau Of Consumers Unions : BEUC)

BEUC는 EC 집행위를 상대로 한국, 일본, 홍콩산 오디오 카세트에 대해 1989년 개시되었던 반덤핑 조사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집행위는 BECU의 관련 정보 접근을 거절하였음.

이에 대해 EC 집행위는 BEUC는 반덤핑 조사에 관한 관련 당사자가 아니며 그러한 권리는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및 수출국 대표들 등 관련 당사자들에 국한되어 있다고 믿고 있으나 반면 BEUC는 그 자신을 EC 시장의 공정 경쟁유지와 소비자를 위한 저가적 제공 등 시장균형을 보장하는 EC 산업의 이익을 대표하

고 있을 뿐 아니라 반덤핑 조사와 직접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4. 일본산 Display Screen

미국은 곧 일본산 PC용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대해 덤핑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임. 제조자인 미국의 6개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일본이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고 있음을 주장.

한편 미국의 대부분의 주요 PC 생산업체들은 일본 제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 A/D 관세가 그들의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 더욱 일본과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동 조사에서 미 상무성은 미·일간 가격비교보다는 원가와 투자 수익성, 연구비 등에 기초한 공식을 개발하고 있음.

#### 5. 세관동맹(Customs Union)

EC 집행위는 최근 단일 유럽내의 세관동맹의 역할과 관련한 제안을 채택, 이는 곧 유럽 이사회 및 유럽 의회 그리고 경제 사회 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칠 것임.

관세동맹(Tariff Union)과는 달리 세관동맹(Customs Union)은 아직 완전히 실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동 제안은 세관법 단일화와 내부 국경 철폐를 위한 EC 세관 코드 채택을 포함함.

#### 6. EC 보호주의정책 비난

유럽 경쟁관련 집행위원인 Mr. Leon Brittan은 보호주의 산업정책을 강하게 비난해 왔음.

경제적으로 이러한 보호주의적 입장은 장애가 될 뿐더러 비생산적이며, 소비자나 기업들 자신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그의 이런 강경정책 노선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우에 있어서 보호주의가 선호되어 왔으며 특히 연례

ESPRIT 회의에서 집행위의 DgXIII의 Mr. Michel Carpentier는 특정 부문에서의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는 강경 무역정책을 지지했었음.

#### 7. 일본산 전자저울 재심

EC 집행위는 CN Code 8423.81.50의 일본산 전자 저울 수입품에 대해 발효중인 반덤핑 규제의 재심을 개시했음.

1986년 확정 관세가 부과되어 1991년 4월 종료될 이 Case는 EC 제조업자들의 요청에 의해 재심케 되었으며 재심 기간동안 기존 관세가 계속 부과될 것임.

한편 유럽 제조자들은 일본이 해외시장, 특히 EC에서 직접 생산을 목적으로 생산 Capa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A/D 규제 이후 가격을 인하하여 덤핑마진이 증가했음을 들어 제소 제소하였음.

#### 8. Customs Code, 유럽 의회 승인

유럽 의회는 집행위 제안한 EC내 세관 코드 설정에 관한 규정을 승인.

개별국 차원에서 상품의 압류, 비축, 판매 등을 다루게 될 세관절차 규정과 EC 차원의 납세자와 행정부간의 분쟁 해결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협의되어질 것임.

집행위원인 Mr. Scrivener는 세관 부문에 관한 모든 EC 규정들은 상호 연관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져 정규적으로 검토되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또한 세관 코드에 수출 및 농업정책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들은 로마 조약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것임을 지적했음.

#### 9. 미·일 반도체 협정

일본과 미국은 1991년 7월 만료되는 미·일

간 반도체 협정의 제2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서 미국은 좀더 일본의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음.

당초 20%선까지 일본 칩 시장의 점유율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자, 미국은 1992년말까지로 시장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일본의 약속을 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었음.

한편 미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 컴퓨터 산업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유럽의 산업단체들과 협력관계를 증진해 왔음.

## 10. European Economic Area (EEA)

EEA 창설을 위한 EFTA와 EEC간 협상이 상품의 자유유통 등 몇몇 부문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농수산 정책 및 조직문제 등 여러 부문에서 난항을 겪고 있음.

EC측 대표인 Mr. Krenzler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Transit Agreement에 동의하지 않을시 EEA는 창설될 수 없음을 경고했음. 또한 EC 집행위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이 제의한 인력 이동의 관한 10년간의 한시적 유보요청은 너무 긴 기간임을 천명.

한편 오스트리아가 6월말까지 동 협상이 마무리지워질 것으로 낙관하는데 반해 스위스 대표인 Mr. Franz Blankart는 EEA 조약을 완결하는데 있어서의 EC의 정치적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

## 11. 私的部門 競争力 協議會, 美国은 33個 主要 技術分野에서 競争力を 상실하고 있다고 主張

私的部門 競争力 協議會는 “새로운 競争力 基盤 確保: 向後 美國의 技術 優先順位 (Gaining New Ground: Technology Priorities for America's Future)”라는 報告書를 통해 美國

은 15個 主要 技術에서 競争力を 상실하고 있거나 이미 상실하였으며 18個의 其他技術에서도 競争력이 취약하다고 主張.

本 協議會는 美 政府에 主要 技術開發을 위한 R & D 投資 支援 擴大를 촉구.

本 報告書는 항공우주, 화학 및 화학관련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약품, 電子部品 및 裝備, 공작기계, 자동차, 통신 등 9個 主要 기술집약산업의 94個 技術을 分析하였음.

美國이 技術競争力を 이미 상실하였거나 進行中인 分野는 下記와 같음.

### ○. 電子部品

Electroluminescent Displays, LCD, 메모리칩, Multichip Packaging Systems, Optical Information Storage, Plasma & Vacuum Fluorescent Displays, PCB 기술

### ○. 材料 및 關聯 工程技術

Display Materials, 전자세라믹, Electronic Packaging Materials, Gallium Arsenide, 실리콘, Structural Ceramics

### ○. 엔지니어링 및 生産技術

IC 組立 및 테스트 裝備, 로버트 및 自動化 裝備

技術競争力 취약한 分野는,

### ○. 電子部品

Actuators, Electro Photography, Electrostatistics, 레이저 장비, Photonics

### ○. 材料 및 關聯 工程技術

Advanced Metals, Membranes, 정밀코팅

### ○. 엔지니어링 및 生産技術

製造 및 製造工程 디자인, Flexible Manufacturing, High-Speed Machining, Integration Of Research, Design And Manufacturing, Leading Edge Scientific Instruments, 정밀베어링, Precision Machining And Forming, 종합적인 품질관리

### ○. Power Train & Propulsion

High Fuel Economy/Power Density Engines

本報告書는 美國業界가 30個 技術分野에서 競爭力이 있으며 其他 31個 分野에서 競爭力이 강하다고 言及.

本報告書는 外國의 競爭企業들은 政府로 부터 강력한 財政支援을 받고 있는 사실을 言及하며 美國의 競爭力 喪失을 批判.

美國은 總 R & D 豫算中 日本의 4.8%, 西獨의 14.5%에 비해 낮은 단지 0.2%를 “産業發展”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임.

本 競爭力 協議會는 핵심기술개발을 연방정부의 R & D 財政支援比率을 增加시키는 5개년 施行計劃을 촉구.

이 5개년 施行計劃 現在 計劃의 重點을 再編하여 특히, 國防關聯 프로그램을 擴大시킴으로써 達成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一 例로, 本 報告書는 美國방부의 軍수품 조달 명세의 3/4이 2000년까지 여러 軍需 및 民需 2가지 軍事·産業用 基準으로 代替 되어야 한다고 권고.

### 12. 韓·美 通商 實務 協商 와싱턴에서 開催

韓·美 通商實務 協商이 4月11日 와싱턴에서 開催. 이미 잘 알려진 현안을 討議하고, 美國 官吏들은 韓國 規定에 대한 不足과 韓國規定의 명확성 결여의 理由를 들어 通商마찰이 있기 전에 韓國이 앞서서 改善措置를 취해줄 것을 촉구.

最近 美國 業界는 美國의 輸出業體들이 선적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유들 때문에 美國의 對 韓 輸出이 방해 받고 있다고 USTR에 불만을 표출.

어느 경우에는 수년간 許容되었던 美國의 輸出品이 새로운 規定에 의해 갑자기 輸入禁止되고 있다는 것임.

또다른 境遇로는 韓國이 화장품과 식품 등의 경우에 具體적으로 認定되고 있는 檢査 및 標準을 受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美國 官吏들은 美國의 輸出品이 韓國에 반입될 때 직면하게 되는 狀況에 대하여 美國의 輸出業者들이 事前에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方法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

이번 會談에서 거론될 雙務 懸案은 아래와 같음.

- 一 韓國의 1989年 交易 및 投資協定 違反嫌疑 (外國人 投資에 관한 制限 규정의 상충)
- 一 知的 財產權 保護 (營業祕密保護, 半導體 chip 保護法 制定, 컴퓨터 소프트웨어 保護)
- 一 韓國의 GATT 國際收支 條項 關聯 Offer (GATT 條件 미충족)

4月18日 兩國間 通商協商이 제네바에서 열릴 協정이며 4月22日 韓國의 GAAT 政府調達 條項 加入問題에 대한 協議가 있을 것이다.

### 13. 日本 通產者 長官, 새로운 美·日 半導體 協定 4月內 成사될 것으로 展望

4.16 日本內 言論 報道에 의하면 에이치 나카오 通產者 長官은 새로운 美·日 半導體 協定이 4月18日, 19日의 實務級 會議과 다음주 각료급 회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展望.

그는 4월말 자신의 美國 訪問前까지 이 協商이 終了될 것으로 展望.

最近 소식으로는 日本이 이 協定の 핵심사항인 20% 目標의 市場占有率에 대한 反對를 撤回하였다는 것임.

關聯 進展事項으로, 마즈다는 4월12일 6개의 日本 部品供給業體 購買業務代表들이 美國을 訪問 美國 chip의 購買와 共同開發 目的으로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모토로라, 인텔 등과 協議를 가질 것이라고 發表.

마즈다는 自動車産業의 半導體 需要가 엔진 콘트롤, 오디오시스템, ABS, 에어백, 조향장치 등에 쓰이는 高性能 半導體 分野에서 수년 내 극적으로 增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發表.

이번에 派遣될 使節團은 生産工程의 모든 部

門에서의 共同開發增大와 아울러 美國의 企業의 能力에 관한 理解 提高 目的임

마즈다 外에도, 이번 使節團에 參與하는 企業으로는 아마센 전기, 수미토모 전기, 날텍, 후지츠, 미쓰비시 전기 등이며 마즈다는 美國 內 生産뿐 아니라 日本內에서의 美國產 部品の 使用을 增加시키고 있음.

#### 14. 美國, 台灣 雙務 政府調達 協定 試圖

美國과 台灣은 現在 GATT 政府調達 코드 加入國에게만 許容되고 있는 主要 美國 政府 調達約에 台灣의 參與를 許容하는 雙務 政府 調達 協定締結 可能性을 타진키 위한 會談을 시작.

台灣은 GATT 會員國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 양허 사항을 규명키 위한 關聯 코드에 해당하는 協定에 관한 論議가 있어야 할 것임.

美國은 事實 타진 위한 會談에는 同意하였으나 台灣과의 上記 協定 締結을 위한 協商에는 言質을 주지 않았음.

台灣은 政府調達 위한 美國 供給業體의 參與을 원하고 있으나 國內價格보다 5% 낮게 Offer 해야만 外國의 소다회를 購買할 수 있는 담배와 포도주의 독점관행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음.

#### 15. 美國 産業그룹, 具體性 없는 SII 協議 批判

1991. 4. 15 美 主要産業 그룹의 代表들은 上院 財務委 國際貿易小委員會에서 가진 청문회에서 日本과 妥結한 SII (構造障壁調整)에 구애 받지 말고, 美國의 對日政策을 強化할 것을 촉구.

美 行政府 5月末까지 SII에 관한 進行 報告書

를 發表해야 함.

美 상공회의소 市長接近 委員會 理事인 존 호워드는 SII가 具體적이고 法律로 規定하고 있는 施行日程 및 節次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不滿을 토로.

그는 美國 業界는 SII 協定에도 불구하고 명확성, 정부조달, 독점금지 규정의 施行, 日本의 稅關 節次 障壁 등 현안문제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言及.

美國 電子協會(AEA) 부사장인 크리스트는 SII의 現안에 관한 AEA의 最大 關心事는 適當적인 社業慣行, 知的所有權 問題, "Buy Japan" 思考方式 등 이라고 指摘.

크리스트는 또한 美國에 있는 日本 電子業體들은 日本에서 74%를 輸入하고 部品 및 其他供給品の 23%만 美國內에서 購買하고 있다고 主張.

EC에 所在하고 있는 日本 業體들은 일본으로 부터 56.7%를 輸入하고 EC內에서 35.8%를 購買하고 있다는 것임.

크리스트는 또한 日本은 特許폭주(Patent Flooding)" 問題를 是正할 必要가 있다고 言及.

技術의 사소한 變更을 위해 많은 수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美國 企業은 각 출원시에 많은 비용을 支出해야 하는 實情임.

크리스트는 日本의 美國產 컴퓨터 政府調達は 自國 市場에서 10% 미만인 반면, 美國 業體들은 日本의 상업용 컴퓨터 購買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表明.

이와같은 狀況은 政府機關에 의한 단독입찰이 빈번하고, 公開입찰을 위한 충분한 準備時間의 不足, 紛爭解決裝置 결여, 外國의 參與를 배제한 입찰조건을 計劃하는 스티디 그룹 등에 基因한다고 主張.